

“밥상물가 급등”... 유통가, 먹거리 ‘초특가’ 경쟁

이마트, 50대 품목 가격격려행사 롯데마트, 삼겹살 100g에 890원 홈플러스, 자체브랜드 상품 할인 정부 “농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밥상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고물가에 가성비·할인 상품 구매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각종 먹거리를 초특가에 제공하는 할인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19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광주지역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5023원으로, 전년 대비 44.46% 상승했다. 평년(3767원)과 비교해도 33.34% 높은 수준이다. 같은 날 기준 무 1개 가격은 3830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22.37%, 평년과 비교해 106.8% 비싸졌다. 양배추 1개는 566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4.35% 올랐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축산·수산물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지난 18일 기준 삼겹살은 100g당 247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2188원)보다 12.89% 비싸졌다. 마른김 10장은 1500원으로, 평년(936원)과 비교해 60.26% 상승했다.

이처럼 이상기후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먹거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유통업체가 밥상 물가 안정에 나섰다.

먼저 이마트는 27일까지 그로서리 5대 품목과 가공·일상 50대 품목을 혜택가에 판매하는 ‘2월 가격격려 선언’ 행사를 진행한다.

5대 그로서리(식료품) 품목으로는 양배추와 수입 삼겹살, 햇멸치, 라면, 즉석밥을 준비했다.

‘양배추(1통)’는 정사가 대비 44% 할인한 2780원에 판매한다. 칼로리가 낮아 식단관리에 유용한 ‘오뚜기 킵누들 매콤한맛(37.8g*6)’을 20% 할인한 6380원에 선보인다. ‘수입 냉장 삼겹살/목심(100g)’은 33% 할인한 1180원에, ‘햇국물용 멸치(500g, 국산)’는 30% 할인한 9086원에 만나볼 수 있다.

4월 24일까지 ‘가격여주행’ 상품 40종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다진마늘 600g’, ‘델몬트 바나나(1송이, 베트남)’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창사 이래 최초로 캐나다산/미국산 삼겹살과 목심을 890원에 선보인다.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수입산 삼겹살/목심(100g/캐나다산,미국산)’을 전 점에서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행사 카드(롯데/신한/NH합병) 결제 시 890원에 특가(1인 2kg 구매 제한) 판매한다.

요리에 많이 활용되는 앞다릿살과 한우도 특가에 판매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릿살(100g/냉장)’을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990원에 주말 특가로 내놓는다. 스테이크로 많이 활용되는 ‘호주청정우 척아이롤(100g/냉장)’과 ‘팔도 우수 한우 참품 전 품목(100g)’에 대해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과일, 채소, 수산 등 대표 신선식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겨울 대표 과일 ‘딸기 전품목’에 대해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AI 선별 제주 황도발 감귤(1kg/팩)’은 엘포

인트 회원 대상으로 9990원에 판매한다. ‘양상추(봉/국산)’의 경우 롯데마트GO 앱을 통해 2봉 이상 결제 시 봉당 1000원 할인한 1990원에 판매한다. 추가로 ‘대게(100g/냉장/러시아산)’는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 4495원에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도 20일부터 27일까지 가성비와 높은 품질을 모두 갖춰 고물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상품을 혜택가에 선보이는 ‘심플러스 메가 PB 선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신상품 ‘심플러스 국내산 농산물 100% 썰은 배추김치(1.9kg, 취급점포에 한함)’를 1만990원에 판매한다. 커피값 부담이 높아진 고객들을 위한 신상품 ‘심플러스 블렌드 캡슐커피 2종(10T)’은 각 2990원에 판매한다. 브라질 NY2, 콜롬비아 수프리모 등 고품질 원두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다.

1급A 원유의 신선함을 담은 ‘심플러스 1A우유(900ml/2.3L)’는 각각 2290원, 5990원에 선보이고, ‘심플러스 1A저지

방 고칼슘우유(900ml)’는 2290원에 판매다. 스테디셀러 ‘심플러스 이춘삼 짜장라면(128g*4입)’은 2300원에 내놓고, 6가지 해물미 불맛 조미유를 더해 국물 맛이 시원한 ‘심플러스 이해봉 짬뽕라면(114g*4입)’은 2800원에 판매한다.

부담 없이 즐기는 1000원 먹거리도 눈여겨볼 만하다. 활용도 높은 ‘심플러스 스위트콘/사골곰탕(340g/500g)’을 비롯해 ‘심플러스 통아몬드/포도젤리 초코볼(42g/40g)’ 등의 상품 모두 각 1000원에 준비했다.

한편 정부는 배추·무 대체 품목인 봄동, 열무, 얼갈이배추, 시금치 등에 대해 정부 할인 20%와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최대 20%를 더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 기간은 20일부터 26일까지로 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몰 등에 적용된다. 이날까지로 예정됐던 배추, 무, 양배추, 당근 할인 지원도 26일까지 일주일 연장된다. 할인 품목과 참여 유통업체 등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기자 dawoon.na@jnilbo.com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공사 실적 감소

광주 11.9% ↓ · 전남 2.1% ↓
건설경기 침체·하도급 물량 감소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전문건설공사 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11.9%,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202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지역 1558개 전문건설업체 중 1368개사가 신고한 기성실적총액은 2조 8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3896억원) 감소했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는 2.1%가 상승한 5135억원이며, 하도급 공사는 14.4% 하락한 2조 3704억원이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공공 및 민간 발주 물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도급공사 실적이 14.4% 감소한 원인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종합건설사의 부도 증가와 하도급 물량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는 1063억원을 신고한 (주)형건설이 공사실적총액 1위를 차지했고 902억원을 신고한 대원산업개발(유), 773억원을 신고한 (주)동호가 뒤를 이었다.

박병철 광주시회 회장은 “건설경기 악화와 건설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전문건설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회원사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사 수주 기회 확대, 공공 발주 확대 건의, 협회 차원의 업계 보호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접수 결과 3835업체가 신고했으며 5조 3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071억원) 감소했지만, 2년 연속 5조원대의 실적이다.

업체별로는 도양기업(주)이 2201억원으로 13년 연속 실적 1위의 영예를 차지했고, 2위 정풍건설산업(주) 1293억원, 3위 (주)신진건설산업 989억, 4위 대야산업(주) 738억원, 5위 진웅건설(주) 710억원 순이다. 100억원 이상 업체는 75개사로 2조 1638억원을 달성했다.

강성진 전남도회장은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회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전남 전문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더 노력해 지역민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으뜸전문건설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푸드워크’ 진행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푸드에비뉴를 찾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푸드워크’ 행사를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정육에서는 차돌박이를 특가로 8900원(100g당)에 판매하고 등심과 채끝도 우대가로 판매한다. 전복·굴비 등 수산 식품 역시 우대가로 만나볼 수 있다. 건강 매장에서는 품목별로 영양제를 최대 70% 할인하며, 베비에르는 마왕파이 1+1 행사(21~23일, 일 50세트 한정)를 진행한다. 델리 코너에서는 매장별로 인기 메뉴를 1만원에 판매하는 ‘만원의 행복’ 메뉴를 선보인다. 더불어 2월21~23일까지는 식품관 1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5000원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AI 기초부터 초거대모델까지 무료로 배운다”

AI사업단 ‘AI 융합아카데미’ 운영 학생·직장인 등 온라인 수강 가능

인공지능(AI) 기초부터 초거대 AI 모델까지 체계적인 AI 전문 교육을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AI 융합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AI 융합아카데미’는 기업의 수요에 맞춘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최신 AI 동향을 분석해 개발한 ‘AI 커리어맵’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과정은 AI 입문(5강), 기초(8강), 최신 기술 동

향을 다루는 세미나(1강)로 구성된다.

주요 강의는 △AI 빅데이터 분석 입문 △자연어 처리 기초 △딥러닝·머신러닝 개념 이해 △AI를 위한 파이썬 코딩 △초거대 AI 모델 세미나 등 총 14개로 마련됐다. 오는 3월부터는 AI 심화 과정

(9강)이 추가 개설되며, 실무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I 커리어맵’은 AI 사업단이 국내외 AI 산업을 분석해 개발한 전문 교육 체계로, AI 분야를 데이터 기술 △AI 모델링 △AI 기반 서비스 △AI 플랫폼·인프라 △AI 비즈니스 개발 등 5개 핵심 직무로 구분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AI 기술 융합 △AI 비즈니스 기획 등 13개 직군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AI 융합아카데미’는 AI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최신 AI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세미나도 함께 운영된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제공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 모집하며, AI 융합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https://portal.atops.or.kr/lm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이마트 “광주지역 밀키트 인기메뉴는 한식”

이마트 밀키트 인기 메뉴가 1년 새 변화하고 있다.

19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밀키트 제품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식은 16.9%, 양식은 13.9% 전년 대비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식은 부대찌개, 순두부찌개와 같은 국물 요리와 새우 감바스, 부채살 큐브 스테이크의 양식 메뉴가 판매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밀키트 인기 상품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파스타로 집계됐으며, 올해 인기 품목은 한 끼 식사에 국물과 메인요리 한 가지는 준비해 먹는 한국인의 식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밀키트는 1~2인 식사에 딱 맞는 양의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국인들의 새로운 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국물 요리와 반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한 상품들의 출시도 인기 요인이다.

이마트는 파스타 5종(미트, 크림, 투움, 봉골레, 베이컨), 찹스테이크 요리 재료 등 양식과 짜장면, 초마짬뽕, 고추잡채, 마파두부 등 중식 및 쌀국수, 월남쌈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상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평소 직접 해 먹기 어려운 참나물, 취나물, 달래 무침, 오이지무침과 같은 무침 요리와 순대볶음, 차돌 숙주볶음 등 볶음 요리에 김치전, 해물파전 요리도 간단하게 쉽게 맛볼 수 있다.

나다운기자